

## 大切な経験

ナ テヒョン

(韓国カトリック大学校言語文化学部 2 年日語・日本文化専攻)

10 月 28 日から 11 月 3 日にわたって日本の信州大学と交流がありました。

私は 今回の国際親善交流実行委員として中野先生に スピーチ大会の準備をたのまれました。私が 準備委員長になったのです。

とうとう、10 月 28 日、信州大学から学生がきました。10 月 28 日の夕食の後に学校の研修院にきて休みました。私は次の日にスピーチ大会の準備のためにねむれなかったんです。私は真夜中、スピーチ大会が行なわれる場所に行って準備をはじめました。まず、いすを 配置しました。一人ではちょっと大変でしたが、いすの配置をなんとか終えて寝ました。あさごはんが終わったか終わらないかのうちに、私はスピーチ大会の準備をしに会場に行ってマイクや懸垂幕の設置をしました。審査表とか順番はあらかじめ つくっておいたので 安心でしたがスピーチ大会の始まる 30 分前、私が知らなかった発表者がまだすこしいました。それで、審査表を作りなお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やっと作り直して、スピーチ大会が 終わりました。私はスピーチ大会の準備委員長として責任を負っていて心配がいっぱいでしたが、大会が無事終ってよかったです。

火曜日には "フリートーキング"があつて教室にあつまりました。私も 連絡をもらって教室に行きました。ところで、前日ぐっすりねむれなかったので教室でいねむりしましたが、だれも私がいねむりしたのに 気づきませんでした。

水曜日には 市内けんがくとホームステイが ありました、私はホームステイはしませんでした。市内見学はしました。"ワールド カップ競技場"とか"インサドン"などに行きました。"インサドン"で中野先生に偶然にあつて驚きました。

金曜日には信州大学の学生が進行した授業がありました。『感謝の場面で使われる「すみません」。』という講義でした。知らなかった表現をならってほんとうによかったです。ひるごはんはカルグクスでしたし夜は送別会もあつてにわとり料理を食べに行きました。学校に戻っても送別会はつづきましたが、私はそうじにいそがしかつたので信州大学の学生と親しくなれる時間があまりありませんでした。これが一番残念です。

土曜日、7 日間の交流が終つて信州大学の学生たちは日本にかえりました。こんな交流は日本語はもとより日本の文化も直接体験できていいと思います。

7 日間のみならず以前から準備していたみなさん、お疲れさまでした。

## 소중한 경험

### 나 태현

#### (언어문화학부 일어일본문화전공 2학년)

10월28일부터 11월3일에 걸쳐 일본의 신슈대학과 교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의 국제친선교류준비위원으로서 나카노 교수님께 스피치 대회 준비를 부탁 받았습니다. 제가 준비위원장이 된 것입니다.

마침내, 10월28일 신슈대학에서 학생들이 왔습니다. 10월28일 저녁식사 후에 학교 연수원에 와서 쉬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에 있을 스피치 대회 준비를 위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 밤중에 스피치 대회가 진행될 장소에 가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의자를 배치했습니다. 혼자로서는 조금 힘들었지만, 의자 배치를 어떻게든 끝마치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식사가 끝나자마자 저는 스피치 대회 준비를 하러 대회 장소에 가서 마이크와 현수막 설치를 했습니다. 심사표와 순서는 미리 만들어 두어서 안심했으나, 스피치 대회가 시작되기 30분 전, 제가 몰랐던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표를 수정해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겨우 수정하여, 스피치 대회가 끝났습니다. 저는 스피치대회 준비위원장으로 책임을 지고 있어서 걱정이 많았지만, 대회가 무사히 끝나 다행이었습니다.

화요일에는 프리토킹(Free Talking)이 있어서 교실에 모였습니다. 저도 연락을 받고 교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전날 잠을 푹 자지 못해서 교실에서 졸고 말았지만, 아무도 제가 존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수요일에는 시내견학과 홈스테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홈스테이는 하지 않았지만, 시내견학은 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인사동 같은 곳에 갔습니다. 인사동에서 나카노 교수님을 우연히 만나 놀랐습니다.

금요일에는 신슈대학 학생이 진행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감사의 장면에서 사용되는 스미마생.』이라는 강의였습니다. 몰랐던 표현을 배워서 정말 좋았습니다. 점심식사는 칼국수로 했고, 저녁에는 송별회도 있어서 닭요리를 먹으로 갔습니다. 학교에 와서도 송별회는 계속되었지만, 저는 청소로 바빴기 때문에 신슈대학 학생들과 친해질 시간이 그다지 없었습니다. 이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토요일, 7일간의 교류를 끝내고 신슈대학 학생들은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일본어는 물론 일본문화도 직접 체험이 가능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7일간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준비를 해온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